



KOCHI자료 10-010

중-대만 ECFA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대만 ECFA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작 성

KOTRA 중국사업단 김 신 아 차장
KOTRA 중국사업단 김 명 신 과장
KOTRA 타이베이 KBC 송 익 준 차장

공동조사 (현지반응 및 자료조사)

KOTRA 시 안 KBC 강 영 진 센터장
KOTRA 베이징 KBC 박 한 진 부장
KOTRA 상하이 KBC 정 준 규 차장
KOTRA 칭다오 KBC 유 예 진 과장
KOTRA 광저우 KBC 오 영 주 과장
KOTRA 다 련 KBC 윤 선 민 과장
KOTRA 우 한 KBC 장 상 해 센터장

중-대만 ECFA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목 차

요약	3
Ⅰ. 양안간 ECFA 체결	
1. ECFA 추진배경 및 경과	7
2. ECFA 주요내용	10
3. ECFA가 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	15
Ⅱ. ECFA 체결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18
2. 산업별 영향	18
3. 거래선 전환 의향	24
Ⅲ. 대응방안	26
부록 :거래선 전환의향 설문조사	29

요 약

□ 중국·대만간 경제협력기본협정 체결

- 중국과 대만은 '10.6.29 충칭(重慶)에서 1)양안간 경제, 무역 및 투자 협력의 강화, 2)무역의 자유화 및 투자보장 시스템 확립, 3)경제협력 영역의 확대 및 협력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을 체결함.

□ 협정 주요내용

- 상품무역 자유화
 - 금번 기본협정의 핵심인 조기자유화프로그램에서 대만이 양허받은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품목은 총 539개 항목이며, 중국은 267개 항목에 대해 양허 받았음.
- 서비스무역 자유화
 - 중국측 자유화 분야는 비금융서비스업 8개, 금융서비스업 3개 등 총 11개 분야이며, 대만측은 비금융서비스업 8개, 금융서비스업 1개 등 총 9개 분야임.

□ ECFA가 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거시경제적 효과
 - 대만 경제부는 2009년 7월 중화경제연구원에 위탁 조사한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의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중국과의 ECFA 체결로 1.65~1.72%p 상승할 것으로 예측함.
- 투자유치 효과
 -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대만 투자 증가 예상
- 대만 경제의 전반적인 체질개선 효과
 - 양안간 분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너지 창출
 - 중국시장을 기반으로 한 규모의 경제 확보

□ ECFA 체결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① 개요

○ 제조업

- 한국의 대중국수출 품목 500大품목(중국세관수입통계 HS 8단위 기준, 2010.1-5월 수출)을 중국의 대대만 양허 ECFA 조기수확관련 품목 539개(중국세관수입통계 HS 8단위 기준)와 비교한 결과 164개 품목이 ECFA 대상품목임.

○ 서비스업

- 중국은 대만에 대해 비금융서비스 8개분야와 금융서비스업 3개분야에 대해 가일층 개방 허용
- 서비스 시장 개방도가 여전히 낮고 우리기업의 진출이 적은 상황에서 '대만'에게 보다 큰 폭의 개방을 허용함으로써 서비스업 분야 진출 어려움 가중.

② 산업별 영향

○ 석유화학

- 우리 석유화학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관세인하 품목 중 항공휘발유, PX, PP, PC 등 대중 수출액이 큰 제품들의 경우, 대만의 주요 수출품으로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철강

- 우리 철강제품은 중국기업보다 중국진출 국내기업에 수출하거나 철강가공센터에 이용되는 철강제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됨.

○ 기계

- 경합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됨. 다만, 수치제어식 금속절삭 가공용 선반 등 일부 경합관계에 있는 제품들은 관세인하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운송공구

- 조기자유화프로그램에 속한 운송공구제품은 50개 품목, 평균관세율은 10.7%에 달하며, 지난 5년간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대만에 비해 줄곧 시장점유율 우위를 지켜왔음.

○ 종합

- ECFA 체결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경합 품목의 경쟁력 약화를 야기하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그러나, ECFA 체결은 가격요소 이외의 부분에서도 대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 우리기업의 중국시장에서의 경쟁격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③ 거래선 전환 의향

- 중국 바이어 29%, '대만기업으로 거래선 전환의향 있다'
 - 'ECFA가 발효될 경우 기존에 거래하던 한국거래선을 대만기업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중국바이어의 48%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반면, 29%는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거래선 전환 의향 바이어 중 69%, 거래선 언제 바꿀지는 '미지수'
 - 거래선 전환의향이 있는 바이어의 약 1/4이 협정발효 2년내 거래선을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 전환의향이 있는 바이어중 전환시점을 '모르겠다'라고 응답해 답변을 유보한 기업이 전체의 69%로 가장 많다는 점에서 ECFA 발효후 즉각적인 거래선 전환사태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대응방안

- 전략적 파트너로서 대만기업과의 협력모델 구축
- 글로벌 브랜드 육성, 핵심기술 확보 등 비가격 경쟁력 강화
- 중국시장내 물류-유통 연계 마케팅 강화
-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
- 강점을 살린 포지셔닝

I. 양안간 ECFA 체결

1. ECFA 추진배경 및 경과

□ 대만과 중국의 정치적 이해

- 중국의 개입으로 인한 대만의 주변국화
 - 중국은 2002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APEC 회담에서 대만은 주권국이 아니므로 WTO 회원국과 FTA를 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중국의 반대로 대만은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서 제외되어 왔음.
 - 현재 대만은 파나마('03. 8월), 과테말라 ('05. 7월), 니카라과('06. 6월), 엘살바도르('07.5월), 온두라스('07.5월) 등 교역 순위 70위권 밖에 위치하며, 교역액이 교역총액의 0.1%에도 못미치는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음.
 - 한편, 한미 FTA 체결('07.6월), 중-ASEAN FTA 발효('10.1월) 등 주변국의 지역간 협정 체결로 대만경제의 주변화 우려가 증폭됨.
- 국민당 정부의 적극적인 양안관계 개선 노력
 - 마잉지우(馬英九) 대만 총통은 2008년 취임 직후 대만이 동아시아경제통합협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대만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함.
 - 이런 맥락에서 대만정부는 중국의 반대없이 ASEAN 국가들과 FTA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안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ECFA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경우 2012년 대선 연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 양안 통일을 위한 중국 정부의 포석
 -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2008년 12월 좌담회에서 대만 정책을 언급하면서 양안간 전면적 경제협력(綜合性經濟合作協議) 가능성을 시사함.
 - 또한, 대만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만 지켜준다면 국제사회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을 암시함.
 - 후 주석은 “양안 통일이 중화민족이 나가야할 역사적 필연” 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안간 정치적 통합을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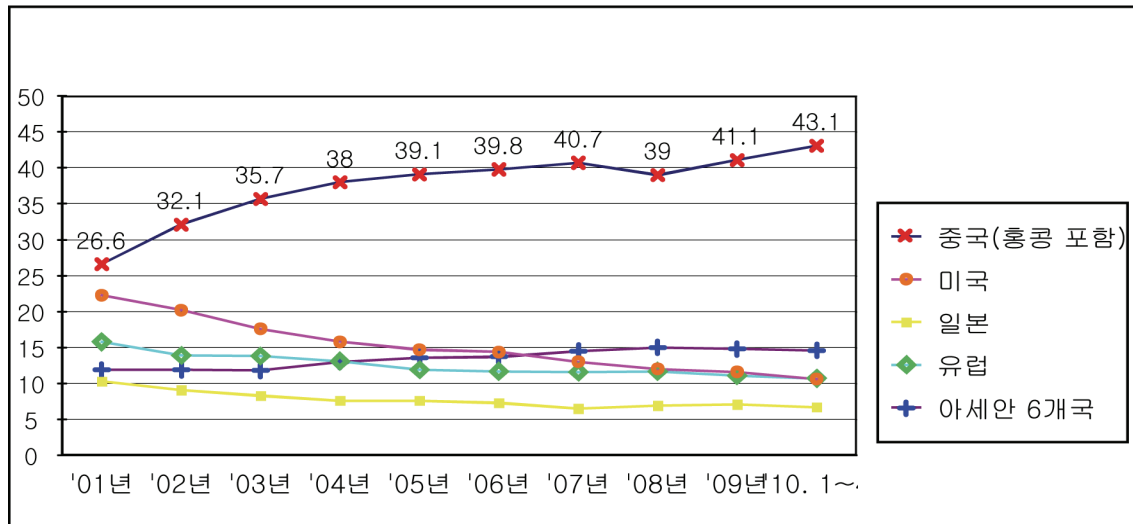
1)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8-12/31/content_10586495_2.htm

□ 양안경제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 추진

- 수출주도형 경제인 대만에서 중국시장의 중요성은 절대적임.
 - 금년 1~4월 대만의 총 수출액 837억 달러 중 중국(홍콩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43.1%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대만의 對주요 교역국의 수출 비중

(단위 : %)



자료원 : 대만 재정부

- 대만은 2002년 WTO 가입 이후 '양안무역허가법'에 따라 대중 수입제한 조치를 크게 완화하였으나, 중-ASEAN FTA 발효 등 자유무역협정이 세계적인 조류를 형성하면서 대만제품의 중국시장 점유율 하락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에 대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해졌음.

8

- 중국정부의 산업고도화 및 서비스업 육성 정책
 - 중국은 정치적 이유로 ECFA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중국정부가 낙후산업 구조조정 및 산업 고도화, 서비스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안간 분업시스템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상품무역 부분에서 중국은 대만에 많은 양보를 했으나, 반대 급부로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통한 중국 서비스업 육성, 상호 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의 고도화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 ECFA 추진 경과

- 10년만에 양안회담(江陳會) 재개
 - 1998년 10월 이래 약 10년간 단절됐던 양안회담이 2008년 6월에 다시 시작되면서 양안 경제교류 및 문화교류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함.²⁾

2) 양안회담의 명칭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海基會, 대표 江丙坤)와 중국해협양안관계협회(海協會, 대표 陳雲林)간의 회담으로 양기구 대표의 성을 따서 江陳會(장천회담)로 부르고 있음.

- 대만과 중국은 정치적 특수관계로 인해 양측 정부가 직접 회담을 열지 못하므로 대만측을 대표하는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財團法人海峽交流基金會)와 중국측을 대표하는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가 정부를 대신해 경제적 교류를 주최함.

양안회담 주요 내용

구분	시기	장소	내 용
1차	'08.06	베이징	주말 전세기 운항, 중국인의 대만관광 확대 등
2차	'08.11	타이베이	양안 항공 및 선박 협상(해운 직항 개통, 화물 전세기 개통, 평일 전세기 개통), 우편 왕래 개방, 식품 안전 협상
3차	'09.04	난징	항공 노선 정기운행, 대만의 중국 자본투자 개방, 양안 금융 협력, 범죄 척결 및 사법 협력
4차	'09.12	타이중	공산품 표준 및 검사인증, 어선 선원 노무 협력 협상, 농산물 검역검사 협력
5차 예비	'10.06	타이베이	ECFA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리스트 및 협정서 합의, IPR 지식재산권 보호 협정서 확정
5차	'10.06	충칭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지식재산권보호협정(IPR) 체결
6차	미정	미정	투자보장협정 체결 예정

자료원 : 대만 해기회, 중국 해협회

○ ECFA 정식 협상 추진

- ECFA 정식 협상은 대만 해기회와 중국 해협회 두 기구가 진행하는 ECFA 협상으로서 양안간 ECFA 전담팀을 구성하여 진행함.³⁾
- ECFA 정식 협상에서는 ECFA 협정서의 순서 및 내용, 물품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서비스업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투자보장협의 등의 내용을 다룸.

ECFA 정식 협상 주요 내용

구분	시기	장소	내용
1차	'10.1월	베이징	공식명칭(海峽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 ECFA) 합의, 협의서 내용 합의 (상품 및 서비스무역 시장개방, 원산지 규칙,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무역구제, 분쟁해결, 투자 및 경제협력), 양안투자보장협의를 ECFA에 포함시켜 협상하기로 결정
2차	'10.4월	타오위엔	협정문 내용,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원산지 규정을 주요 의제로 협상 전개
3차	'10.6월	베이징	협정 본문 및 5개 조항 16조례에 기본적인 합의 도출,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리스트 부분적으로 동의

자료원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3) 대만측 경제부 국제무역국장 黃志鵬과 해기회 부이사장 高孔廉을 비롯 금융관리위원회, 보험국, 교통부, 신문국, 위생서 등 관련 부서 20여 명의 전담팀과 중국측 해협회 부회장 鄭立中과 대만·홍콩·마카오 상업업무부 사장 唐煒 등으로 구성됨.

○ 향후 추진 과제

- 야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이 의석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회 비준은 별 무리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협정 발효시 6개월내에 양안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협상, 투자보장협상, 분쟁해결협상 등 4대 협상을 진행할 계획임.

ECFA 추진 예정 4대 협상

구분	주요 내용
상품무역협상	관세인하 및 무관세 모델 정립, 원산지규정, 수출입 절차, 비관세장벽 및 무역구제 시행 등
서비스무역협상	점진적 서비스 무역의 규제 삭감 및 철폐, 교역 가능 서비스 무역의 범위 확대 및 심도 확장, 협력이 가능한 서비스 무역의 영역 확장
투자보장협상	투자보장기구 및 제도 설립, 투자관련규정에 대한 투명도 제고, 양안 간 투자편리화 촉진
분쟁해결협상	분쟁해결 메커니즘 설립, 운영 규정 및 해결 방식 등

자료원 : 대만 경제부

2. ECFA 주요내용

□ 협정 개요

- 대만과 중국은 1)양안간 경제, 무역 및 투자 협력의 강화, 2)무역의 자유화 및 투자보장 시스템 확립, 3)경제협력 영역의 확대 및 협력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협정을 체결함.
- ECFA의 기본방향은 상대방의 경제적 조건을 감안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정함.
 - 1) 실질적인 상품 무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축소 혹은 철폐
 - 2) 서비스 무역의 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축소 혹은 철폐
 - 3) 투자보호 제공 및 쌍방향 투자 촉진
 - 4) 무역투자의 간편화, 산업 교류와 협력 촉진
- 대만과 중국은 '양안경제합작위원회'를 설치, 본 협의 관련 다음과 같은 사안을 처리하게 함.
 - 1) 본 협의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협상의 마무리
 - 2) 본 협의의 집행을 감시 및 평가
 - 3) 본 협의의 해석, 시행, 적용 관련 모든 분쟁의 해결
- 발효
 - 협의 체결 후 각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상대 측에 서면 통지하며, 상대방의 통지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발효됨.

○ 해지

-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며, 해지 통지 발부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협상을 개시해야 하며, 협상이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지통지 발부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부터 해지됨.

□ 상품무역 자유화

- 금번 기본협정의 핵심이 되는 조기자유화프로그램에서 대만이 양허받은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품목은 총 539개 항목으로 수출액 138억 3000만 달러에 해당되는 규모임.
- 중국은 267개 항목에 대해 양허 받았으며, 수출액 28억 6000만 달러에 해당되는 규모로 대만 측과 비교했을 때 항목 수는 대만의 절반, 수출액은 1/5에 해당됨.

양안ECFA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관세인하 효과 비교

항목	對대만 인하 항목	對중국 인하 항목	비율
조기자유화 품목(개)	539	267	2:1
해당품목의 수출액(억달러)	138.3	28.6	4.8:1
수출총액 대비 비중(%)	16.1	19.5	1.5:1

자료원 : 대만 경제부

- 조기자유화 리스트에 오른 쌍방 품목들의 관세율은 ECFA가 발효될 예정인 2011년 1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인하될 계획임.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관세율 적용기준

중국의 對 대만 관세율				대만의 對 중국 관세율			
현행관세(%)	1년차 '11.1.1	2년차 '12.1.1	3년차 '13.1.1	현행관세(%)	1년차 '11.1.1	2년차 '12.1.1	3년차 '13.1.1
$0 < X \leq 5$	0%			$0 < X \leq 2.5$	0%		
$5 < X \leq 15$	5%	0%		$2.5 < X \leq 7.5$	2.5%	0%	
$15 < X$	10%	5%	0%	$7.5 < X$	5%	2.5%	0%

자료원 : 대만 경제부

- 대만이 양허받은 539개 항목 중 70%의 품목이 석유화학과 기계, 방직, 운송공구의 4개 산업에 속하며, 동 산업군은 대만의 對중국 수출총액 중 30%를 차지하는 대만의 對중국 주력 수출산업임.

중국의 對대만 조기자유화 리스트 산업별 분석

(단위 : 백만 달러, %)

산업	항목수	2009년 對中 수출액	對中 수출총액 점유율
석유화학	88	5,944	6.93
기계	107	1,143	1.33
방직	136	1,588	1.85
운송공구	50	148	0.18
기타	140	4,997	5.84
철강	22	1,078	1.26
금속제품	26	1,818	2.12
공구	5	13	2.00
전기	14	614	0.72
기타	73	—	—
농산품	18	16	0.02
총계	539	13,838	16.14

자료원 : 대만 경제부

주 : 석유화학, 공작기계, 인조섬유 및 소형차 등 중국 측 민감 품목 일부는 조기자유화 리스트에서 제외되었음

- 중국은 농산품 및 인력시장은 개방하지 않겠다는 대만 정부의 입장에 따라 농산품을 제외한 총 267개 품목의 양허를 받았으며, 이들 품목은 대부분 원료 등 업스트림 제품과 대만내 생산량이 적은 제품들로서 대만측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양안은 삼각무역을 통한 무임승차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규정을 제정함.

- 일반적으로 FTA에서 역내 부가가치 기준(RVC, Regional Value contents)⁴⁾을 35~40%로 정하는데 비해 ECFA 임시 원산지규정은 이보다 높은 수준인 40~50%로 정하고 있어서 실제 관세혜택을 받는 품목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양안은 조기자유화에 따른 충격 완화의 예비 장치로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기본협정 내용에 포함하고 있음.

- 특정 상품의 관세 인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최혜국 대우(MFN)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서비스무역 자유화

- 서비스업 조기자유화 프로그램은 GATS(서비스무역일반협정)의 서비스업 분류법(GNS/W/120)에 의거해 제정됐고, 개방되는 서비스업의 내용은 UN 산업분류표(CPC)의 서비스업 정의에 근거함.

- 중국측 자유화 분야는 非금융서비스업 8개, 금융서비스업 3개 등 총 11개 분야이며, 대만측은 非금융서비스업 8개, 금융서비스업 1개 등 총 9개 분야임.

4) 물품의 실질변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완제품의 전체 가치중에서 협정당사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이상이면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

ECFA 서비스업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총괄표

구분	중국측 개방 서비스업	대만측 개방 서비스업
非금융 서비스업	회계·감사·부기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자연과학 및 공학 R&D, 컨벤션 서비스, 전문 디자인 서비스, 대만 중문 영화수입할당제 해제, 의료서비스, 항공기 유지 및 수리 서비스	R&D 서비스, 컨벤션서비스, 전시회 서비스, 특수제조품 설계서비스(실내디자인 서비스 제외), 중국 혹은 중국 공동제작 영화, 커미션 계약 서비스(동물 제외),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항공위차추적서비스
금융 서비스업	보험업, 은행, 증권·선물업	은행
총 항목수	11	9

자료원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중국의 對대만 개방 서비스업

서비스업		발효될 조기자유화 내용
非금융 서비스업	회계·감사·부기 서비스	대만 회계사무소가 중국에서 임시로 회계감사업무를 볼 시 신청하는 허가증의 유효기간을 반년에서 1년으로 연장
	컴퓨터 서비스	대만 서비스제공자가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소프트웨어 구현 서비스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 제공을 허가
	자연과학 및 공학 R&D	대만 서비스제공자가 중국에서 합자, 합작, 독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자연과학과 공학의 연구 및 실험개발을 허가
	컨벤션 서비스	대만 서비스제공자가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컨벤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
	전문 디자인 서비스	대만 서비스제공자가 중국에서 합자, 합작, 독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전문 디자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
	대만영화 수입할당제 해제	중국 주관부문의 심사를 통과한 대만의 (중국어)영화의 중국 상영 시 '수입 할당제'의 제한 없음
	의료서비스	대만 서비스제공자가 중국에서 합자, 합작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허가하고, 상하이, 장수, 푸젠, 광둥, 하이난에서는 독자병원의 설립도 허가
	항공기 유지 및 수리 서비스	대만 서비스제공자가 독자, 합자형식으로 중국 항공기 유지 및 수리영역에 투자할 수 있게 허가

서비스업		발효될 조기자유화 내용
금융 서비스업	보험업	대만 보험사가 통합 혹은 전략적 합병을 통해 그룹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
	은행	(1) 독자은행 혹은 지점설립 신청 : 중국에 대표부 설립하여 1년 이상 운영 (2) 위안화 업무 운영 신청 : 중국에 개업한지 2년 이상인 업체로 신청연도 기준 1년전 순이익 공시 (3) 중국진출 대만기업의 위안화 업무 운영 신청 : 중국에 개업한지 1년 이상인 업체로 신청연도 기준 1년 전의 순이익을 공시 (4) 소형 기업의 금융서비스 전문 부서 건립 허가 (5) 그린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국 중서부·동북부에 지점 설립 (6) 지점의 이윤성 관련 자격을 심사할 시, 기타 지점 전체를 대조 심사
	증권·선물업	(1) 중국 증권시장에서 자격조건을 만족시키는 해외기업을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대만 투자자)에게 편리 제공 (2) 빠른 시일 내에 합당한 투자자격을 갖추고 있는 투자자(중국 투자자)에게 대만의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금융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함 (3) 대만 증권거래소의 직원이 중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청할 때 신청과정을 간편화

자료원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대만의 對중국 개방 서비스업

서비스업		발효될 조기자유화 내용
非금융 서비스업	R&D 서비스	중국 서비스제공자가 대만에서 독자, 합자, 합작법인 및 지점 등의 형태로 영업거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연구 및 개발서비스의 제공 허가
	컨벤션 서비스	중국 서비스제공자가 대만에서 독자, 합자, 합작법인 및 지점 등의 형태로 영업거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컨벤션 서비스의 제공 허가
	전시회 서비스	중국기업 혹은 사업체, 전시회와 관련된 단체 및 기금회 등이 대만에서 전시산업관련 기업 혹은 공회, 협회, 상회 등의 단체와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을 허가
	특수제조품 설계서비스(실내디자인 서비스 제외)	중국 서비스제공자가 대만에서 독자, 합자, 합작법인 및 지점 등의 형태로 영업거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특수제조품 설계서비스의 제공 허가
	중국 혹은 중국 공동제작 영화	중국 영화가 대만의 주관부문의 심사 통과 후, 대만에서 상업적으로 상영할 수 있음. 단, 중국 영화의 대만진입 관련 규정 준수 필요(연간 10편으로 제한)
	커미션 계약 서비스 (동물제외)	중국 서비스제공자가 대만에서 독자, 합자, 합작법인 및 지점 등의 형태로 영업거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커미션 계약서비스의 제공 허가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중국 서비스제공자가 대만에서 독자, 합자, 합작법인 및 지점 등의 형태로 영업거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의 제공 허가
	항공위치추적서비스	중국 서비스제공자가 대만에서 독자, 합자, 합작법인 및 지점 등의 형태로 영업거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항공위치추적서비스의 제공 허가
금융 서비스업	은행	대만 주재 대표처를 설립한지 만 1년이 넘은 중국 은행은 지점설립을 신청할 수 있음

자료원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3. ECFA가 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거시경제적 효과

- 대만 경제부는 2009년 7월 중화경제연구원에 위탁 조사한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의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중국과의 ECFA 체결로 1.65~1.72%p 상승할 것으로 예측함.

ECFA 체결에 따른 대만의 경제효과

전제조건	GDP (%P)	수출량 (%P)	수입량 (%P)	무역수지 (US\$억)	생산액 (US\$억)
현행 중국 농·공산품 수입 통제 유지, 수입 개방된 중국 농·공산품 관세 인하	+1.65	+4.87	+6.95	+17.58	+280.05
중국 농산물 수입 통제는 유지하되 공산품 수입을 완전 개방하고 관세 인하	+1.72	+4.99	+7.07	+17.79	+288.84

자료원 : 대만 경제부

- 이 밖에 사회복지가 77억 달러 정도 늘어나고, 총 취업인 수는 26만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음.
- 여기에 서비스업 자유화에 따른 효과를 감안하면 경제성장률이 추가 상승해 대만 행정부에서는 앞으로 8%대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투자유치 효과

-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대만 투자 증가 예상
 - 중국은 최근 LCD 공장 심사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외자유치 기준이 엄격해 지고 있으며, 폭스콘 사태를 계기로 임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기존 투자 메리트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반면, 안전한 투자처로 인정받고 있는 대만이 중국진출을 위한 우회 투자처로 각광받게 될 가능성이 큼. 대만 경제부는 ECFA를 계기로 향후 7년간 FDI 금액이 8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 1,0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만이 지역경제협정에 참여할 경우 기업의 투자유발효과는 23.0%~29.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⁵⁾

5) Tung Chen-yuan, "The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gime and Taiwan," Asian Perspective, Vol. 34, No. 2 2010

대만의 지역경제협정 참여시 투자유치 효과

(단위 : %)

구분	양안경제통합협정 체결시	대만이 동아시아 경제통합 협정에 참여할 경우
대만 국내기업	28.3	20.27
중국진출 대만기업	25.54	19.02
대만소재 외투기업	37.93	35.17
국제 투자자문 기업	85.72	92.86
평 균	41.36	37.02
가중평균	29.77	23.01

□ 대만 경제의 전반적인 체질개선 효과

- 양안간 분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너지 창출
 - 첨단기술의 중국 진출을 금지하는 대만정부 정책으로 인해 대만 기업의 중국진출이 제한되어 왔으나, ECFA를 계기로 양안은 LCD TV와 같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 분야에서 대만은 핵심부품을 공급하고 중국은 완제품 조립 생산을 담당하는 생산 공급사슬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중국시장을 기반으로 한 규모의 경제 확보
 - 대만은 협소한 내수시장, 보수적인 투자성향으로 OEM/ODM 중심의 비즈니스가 주류를 이뤘으나, 거대 수요처인 중국시장을 발판삼아 대만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됨.

대만의 5대 글로벌 브랜드 (2009)

순위	브랜드명	전문 분야	브랜드가치 (US\$억)	증감율 (%)
1	ACER	PC	12.41	-1.8
2	Trend Micro	백산보안솔루션	12.35	-6.8
3	ASUS	메인보드	12.26	-7.4
4	HTC	이동통신기기	12.03	0.08
5	Master Kong	인스턴트 라면	9.16	15.5

자료원 : Branding Taiwan

□ 주요 산업별 영향

- 대만 정부는 ECFA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후속 협상 등을 통해서 조기자유화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품목이 추가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임.

-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기자유화품목 추가는 국제적으로 관례가 없는 일이지만, 양안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기도 힘들다고 함.
- 또한, 후속 협상에서 결정될 원산지규정협상에서 지역별생산합량(RVC)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효과는 다소 달라질 수 있음.

ECFA의 대만 주요 산업별 영향

산업 분류	영 향
석유화학	대만 석유화학 원료의 대중 수출 비중이 약 50% 이상이므로 수혜가 예상되며, 플라스틱 화학 수출상품의 66%가 관세 감면을 받아 수혜 예상(현행 관세율 : 2~6.5%)
기계	관세 감면 및 통관 수속비용 약 30% 절감 예상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관세 감면에 따른 수혜 예상
철강	일부 대중 수출 철강제품의 무관세화로 수혜 예상(현행 관세율 : 5~8%)
전자	많은 IT기업들이 중국에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산업 관세가 낮아서 영향 미미(현행 관세율 : 0.58%)
서비스업	대만 은행의 중국시장 진입 시간이 많이 단축됐으며, 보험업의 규제도 많이 완화되는 등 기타 WTO 회원국보다 우대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금융업 분야의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

자료원 : 臺灣工銀證券, 타이베이KBC

II. ECFA 체결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 제조업분야

- 한국의 대중국수출 품목 500대품목(중국세관수입통계 HS 8단위 기준, 2010.1-5월 수출)을 중국의 대대만 양허 ECFA 조기수확관련 품목 539개(중국세관수입통계 HS 8단위 기준)와 비교한 결과 164개 품목이 ECFA 대상품목
 - 동 품목들의 대중수출(중국의 세관수입통계기준)액은
 - 2009년 167억 달러로 대중수출액 1,021억 달러중 16.3%점유
 - 2010년(1-5) 87억 달러로 대중수출액 538억 달러중 16.2% 점유

□ 서비스업 분야

- 중국은 대만에 대해 비금융서비스 8개분야와 금융서비스업 3개분야에 대해 가일층 개방 허용
- 서비스 시장 개방도가 여전히 낮고 우리기업의 진출이 적은 상황에서 '대만'에게 보다 큰 폭의 개방을 허용함으로써 서비스업 분야 진출 어려움 가중.
- 우리나라는 중국시장에서 금융, 보험 등 금융권 진출이 주를 이루어왔으나 세계적인 금융서비스 기업들과 중국의 대규모 서비스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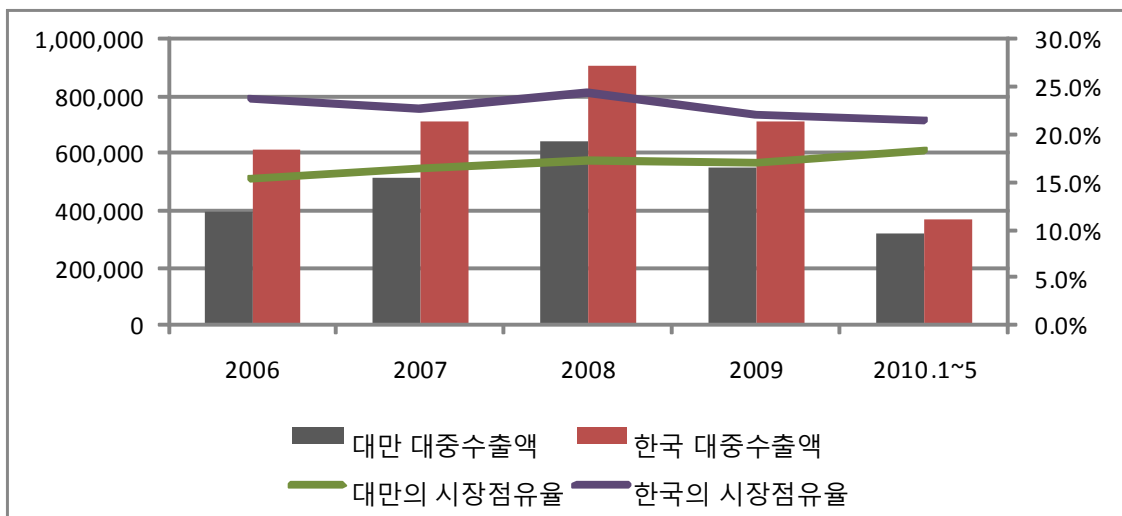
2. 산업별 영향

□ 석유화학

- 조기자유화프로그램에 속한 석유화학제품은 88개 품목, 평균관세율은 6.6%에 달하며, 지난 5년간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대만에 비해 줄곧 시장점유율 우위를 지켜왔음.

조기자유화대상 석유화학 제품의 중국내 한국-대만 시장점유율

(단위 : 만 달러, %)



- 금번 관세인하 대상에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인 ABS, PVC, PE, TPA는 제외됨에 따라 당초 우려에 비해 우리 석유화학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관세인하 품목 중 항공휘발유, PX, PP, PC 등 대중 수출액이 큰 제품들의 경우, 대만의 주요 수출품으로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석유화학 조기자유화대상 중 우리나라의 10대 수출품목('09)

(단위 :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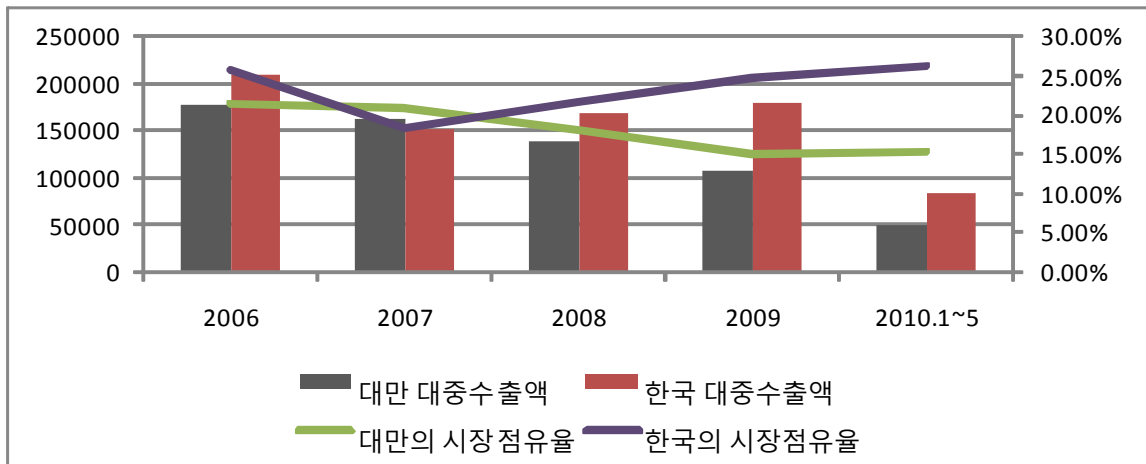
순위	HS CODE	품명	현행 관세	한국 대중수출		대만 대중수출	
				수출액	점유율	수출액	점유율
1	27101911	항공 휘발유	9	1,677,758	52.09	451,429	14.0
2	29024300	파라-크실렌	2	852,377	24.43	440,685	12.6
3	39074000	폴리카보네이트	6.5	533,666	19.22	354,547	12.8
4	29012200	프로펜(프로필렌)	2	481,794	35.30	428,002	31.4
5	39023010	프로필렌공중합체	6.5	348,619	38.53	88,552	9.8
6	27101993	윤활유기초유	6	332,817	24.80	47,534	3.5
7	39269090	플라스틱제품 기타	10	221,016	15.47	106,038	7.4
8	39199090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필름 등	6.5	194,353	17.75	167,967	15.3
9	392062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것	6.5	159,397	12.73	236,830	18.9
10	39231000	상자.케이스.바구니등	10	159,204	34.3	88,362	18.5

□ 철강

- 조기자유화프로그램에 속한 철강제품은 22개 품목, 평균관세율은 7%에 달하며, 2007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5년간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대만에 비해 줄곧 시장점유율 우위를 지켜왔음.

조기자유화대상 철강 제품의 중국내 한국-대만 시장점유율

(단위 : 만 달러, %)



- 금번 관세인하 대상 품목 중 선재, 스테인레스강 등 일부품목에서 경합이 예상되나 국내 제품이 품질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국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철강제품은 중국기업보다 중국진출 국내기업에 수출하거나 철강가공센터에 이용되는 철강제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함.

철강 조기자유화품목 중 우리나라의 10대 수출품목('09)

(단위 : 천달러,%)

순위	HS CODE	품명	현행 관세	한국 대중수출		대만 대중수출	
				수출액	점유율	수출액	점유율
1	72091790	철/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두께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 중 기타)	3	497,549	41.46	111,485	9.3
2	7210300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중 아연을 전해도금 또는 도포한 것	8	287,488	27.20	100,949	9.6
3	7210490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중 기타	4	190,798	20.17	215,410	22.8
4	7219132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중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중 기타	4	157,226	49.68	5,354	1.7
5	72083990	철/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두께 3밀리미터 미만인 것 중 기타	3	155,071	14.09	177,114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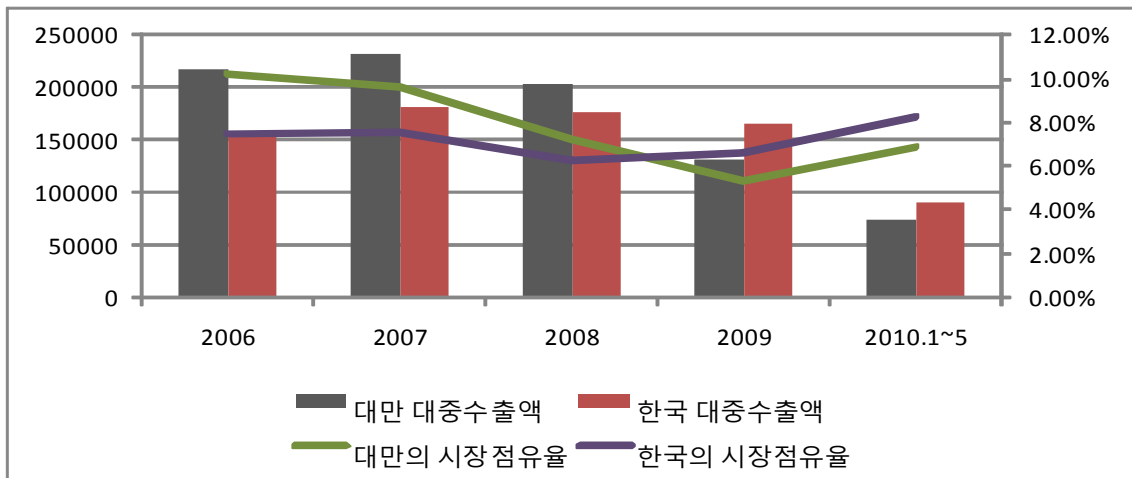
순위	HS CODE	품명	현행 관세	한국 대중수출		대만 대중수출	
				수출액	점유율	수출액	점유율
6	7209169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중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중 기타	6	96,335	40.73	54,461	23.0
7	72251900	기타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중 기타	6	84,401	23.09	90,945	24.9
8	7208279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중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중 기타	5	76,090	35.43	25,066	11.7
9	72193400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70,694	19.67	75,048	20.9
10	72091890	두께가 0.5밀리미터 이하인 것 중 기타	6	60,675	31.81	36,779	19.3

□ 기계

- 조기자유화프로그램에 속한 기계제품은 107개 품목, 평균관세율은 8.75%에 달하며, 2008년까지 대만 제품이 시장 점유 우위를 보이다가 2009년부터 역전함.

조기자유화대상 기계 제품의 중국내 한국-대만 시장점유율

(단위 : 만 달러, %)



- 기계제품은 방직제품(136개) 다음으로 많은 107개 품목이 조기자유화프로그램에 속하고 있으나, 70%를 상회하는 75개 제품이 연간 수출액 1천만불 이하이며, 23개 제품은 1백만불 이하로 나타남.
- 또한, 주요 수출 품목의 경우 점유율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경합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됨. 다만, 수치제어식 금속절삭 가공용 선반 등 일부 경합관계에 있는 제품들은 관세인하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기계 조기자유화품목 중 우리나라의 10대 수출품목('09)

(단위 :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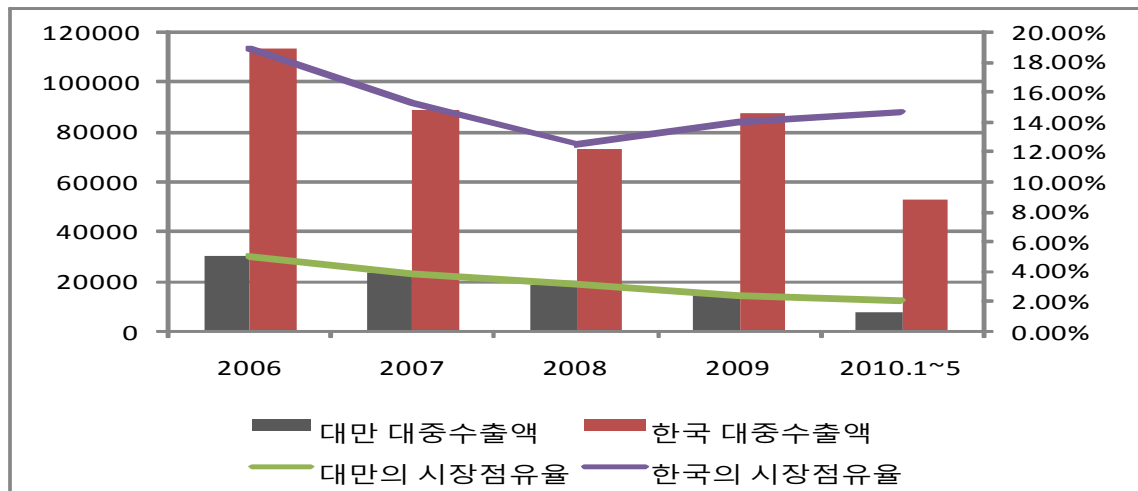
순위	HS CODE	품명	현행 관세	한국 대중수출		대만 대중수출	
				수출액	점유율	수출액	점유율
1	82073000	프래싱, 프탬핑, 펀칭 공구	8	156,449	24.26	41,776	6.5
2	84818010	기타 밸브	5	93,323	3.52	53,067	2.0
3	35069190	폴리머 또는 고무를 기재로한 접착제 중 기타	10	88,910	14.65	109,596	18.1
4	84812010	유압 전송용 밸브	5	73,749	13.25	12,069	2.2
5	84839000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 전동용 엘리먼트 및 부품	8	69,520	8.07	37,068	4.3
6	84195000	열교환기	9	63,916	7.64	8,295	1.0
7	84589100	금속 절삭 가공용의 선반 수치제어식 기계	9.7	63,354	28.62	59,479	26.9
8	84518000	수세용, 건조용, 다림질용, 프레스용, 표백용, 염색용, 드레싱용, 도포용, 침지용에 들어있지 않은 기타 기계류	8	50,648	23.05	50,230	22.9
9	84621010	수치제어단조 혹은 다이스탬핑기 및 헤머	15	43,701	19.27	17,728	7.8
10	35069900	기타 글루	10	41,115	21.89	25,118	13.4

□ 운송공구

- 조기자유화프로그램에 속한 운송공구제품은 50개 품목, 평균관세율은 10.7%에 달하며, 지난 5년간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대만에 비해 줄곧 시장점유율 우위를 지켜왔음.

조기자유화대상 운송공구 제품의 중국내 한국-대만 시장점유율

(단위 : 만 달러, %)



- 운송공구는 완성차를 제외한 자동차 부품과 자전거 및 부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전거 및 부품에서 대만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부품의 시장점유율은 우리나라가 월등한 상황임.

운송공구 조기자유화품목 중 우리나라의 10대 수출품목('09)

(단위 : 천달러, %)

순위	HS CODE	품명	현행 관세	한국 대중수출		대만 대중수출	
				수출액	점유율	수출액	점유율
1	87082990	차량 목록에 없는 부품	10	336,096	17.30	35,860	1.8
2	87084099	목록에 없는 전동차량용 변속기 및 부품	10	181,570	16.54	1,214	0.1
3	87089999	전동차량용 목록에 없는 부품	10	130,610	8.09	9,850	0.6
4	87082959	차량 패널	10	94,694	63.78	3,692	2.5
5	85129000	제 8512호 장비 부품	10	43,585	15.49	4,546	1.6
6	87082941	자동차 전동썬루프	10	21,299	17.84	12	0.0
7	85122010	전동차량용 조명기구	10	17,986	6.84	1,543	0.6
8	87081000	버퍼 (범퍼) 및 부품	12	15,855	12.12	3,646	2.8
9	87087090	기타 차량용 바퀴 및 부품	10	14,478	17.16	687	0.8
10	87082955	트렁크 커버	10	5,257	34.58	260	1.7

□ 종합평가

- ECFA 체결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경합 품목의 경쟁력 약화를 야기하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대만 정부는 후속협상을 통해 조기수확프로그램 추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관례가 없으며 추가할 경우에도 사전 조율 및 입법원 통과 절차가 필요하므로 단기간내 이뤄지기는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ECFA 체결은 가격요소 이외의 부분에서도 대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ECFA 체결을 준비하면서 대만과 중국의 산업별 협회는 MOU 체결을 통해 경제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개별 기업의 협력 사례도 부쩍 증가하는 등 양안 경제통합에 따른 차이완 기업의 탄생이 우리기업이 항상 예의 주시해야할 부분임.

3. 거래선 전환 의향

□ 중국 바이어 42%, ECFA 체결... '모른다'

- KOTRA 중국통상전략연구센터와 중국지역 8개 KBC가 최근 베이징, 상하이, 산둥성, 랴오닝성 등지의 한국기업과 거래하는 중국바이어와 대만바이어를 대상으로 ECFA체결에 따른 거래선 전환의향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 결과, 설문응답 중국 바이어 100개사 중 58개사가 '중-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이하 ECFA)'체결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42개사는 모른다고 답해 ECFA 체결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한편, 한국과 거래하는 대만기업 20개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진 결과, 16개사가 'ECFA 체결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중국기업에 비해 대만기업의 ECFA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았음

□ 중국 바이어 29%, '대만기업으로 거래선 전환의향 있다'

- 'ECFA가 발효될 경우 기존에 거래하던 한국거래선을 대만기업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중국바이어의 48%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반면, 29%는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한편, '모르겠다'라고 응답을 유보한 중국 바이어가 전체의 23%를 차지해 ECFA체결 이후에도 A/S, 품질력 제고를 통해 기존 중국거래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됨
- 대만바이어는 ECFA 발효후 거래선을 중국기업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의 75%가 '의향이 없다'라고 답해 ECFA 발효에 따른 대만내 우리제품의 타격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거래선 전환 의향 바이어 중 69%, 거래선 언제 바꿀지는 '미지수'

- 거래선 전환의향이 있는 바이어의 약 1/4이 협정발효 2년내 거래선을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 대만기업으로 거래선을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중 '협정 발효후 6개월미만', '발효후 6개월 이상 1년미만', '발효 후 1년 이상 2년미만'으로 응답한 바이어가 각각 7%에 달함
 - '협정 발효후 2년 이상 3년 미만' 또는 '발효후 3년 이후'라고 답한 바이어는 각각 3%로 비중이 낮았음
- 전환의향이 있는 바이어중 전환시점을 '모르겠다'라고 응답해 답변을 유보한 기업이 전체의 69%로 가장 많다는 점에서 ECFA 발효후 즉각적인 거래선 전환사태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한국산, 품질 우수해서 거래선 안바꾼다' 답변, 중·대만 바이어 모두 가장 많아

- 'ECFA가 발효된 후에도 한국거래선을 대만기업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중국 바이어들은 그 이유로 '한국산의 품질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답변함(41개사 답변, 복수응답 허용)
 - 뒤를 이어 ▷한국산의 A/S가 우수해서(15개사) ▷한국산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서(8개사) ▷ECF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효과가 생각보다 낮아서(3개사) 순으로 집계됨(복수응답 허용)
 - 대만 바이어들도 한국산의 품질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거래선을 변경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11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ECFA의 관세효과가 생각보다 낮아서'라고 응답이 8개사로 나타남(복수응답 허용)

□ 중·대만 바이어 모두 ECFA로 가장 타격입는 한국산으로 '전자제품' 꼽아

- ECFA 조기수확대상 대만산 품목의 중국 수출이 늘어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한국산으로 전자제품을 꼽은 중국바이어가 39개사로 가장 많았음(복수응답 허용)
 - 다음으로는 ▷농산물(22개사) ▷자동차부품(9개사) ▷기계(8개사) ▷석유화학(7개사) ▷방직품(7개사) 순으로 나타남(복수응답 허용)
- 한편, ECFA 발효로 중국시장내 대만산과 한국산 경쟁이 심화될 경우 한국산이 시장점유율 유지 확대를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중국바이어 39개사가 가격 경쟁력을 꼽음(복수응답 허용)
 - 뒤를 이어 ▷품질경쟁력(21개사) ▷중국현지생산체제(20개사) ▷마케팅 전략(10개사) ▷상거래관행(6개사) 순으로 나타남(복수응답 허용)

III. 대응방안

□ 전략적 파트너로서 대만기업과의 협력모델 구축

- 대만은 중국과 언어와 문화의 유사성으로 중국시장 진출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일본기업의 경우는 이를 활용하여 대만과 중국시장 공동진출을 적극 추진해 왔음.
 - 일본 Duskin사의 경우, 2000년 중국시장 독자 진출 후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대만 식품그룹 통이(統一)과 협력하면서 Mister Donut 중국 매장이 크게 성장했음.
- 한국과 대만은 산업구조의 유사성으로 반도체 치킨게임과 같은 제로섬 경쟁을 해왔으나, 이는 쌍방 모두에게 불리하며 상생의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함.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대만기업의 원가 절감 노력, 지속되는 엔화 강세, 한류 열풍으로 인한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 어우러져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임.

□ 글로벌 브랜드 육성, 핵심기술 확보 등 비가격 경쟁력 강화

- 국가 및 지역간 FTA 체결이 세계적 조류를 이루면서 가격우위 경쟁력은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임. 따라서 글로벌 브랜드의 육성, 핵심기술의 확보를 통해 배타적 경쟁력을 키워야 함.
 - 대만은 중국시장을 배후 삼아 브랜드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 세계적인 브랜드 출현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영역에서의 경쟁 또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 한류 마케팅과 브랜드 마케팅 강화를 통하여 대만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분야의 경쟁력 강화

□ 중국시장내 물류-유통 연계 마케팅 강화

- 우리제품의 비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유통 연계 마케팅 강화
 - 내륙지역 지원거점 확대 및 공동물류센터 확대를 통해 우리기업의 중국내륙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

□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

- 중국내 글로벌기업과의 파트너십 사업 강화를 통하여 기계설비 및 부품, 자동차 부품 분야 진출 확대 노력 지속

□ 강점을 살린 포지셔닝

- 중국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 정책 방향을 정확히 인식하고, 중국 내부의 가치사슬에 올라타는 것임.

- 중국정부는 낙후산업의 퇴출, 산업의 고도화 및 서비스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 속에서 대만 기업은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갈 것임. 우리기업도 자신만의 강점을 살려 포지셔닝할 고리를 찾아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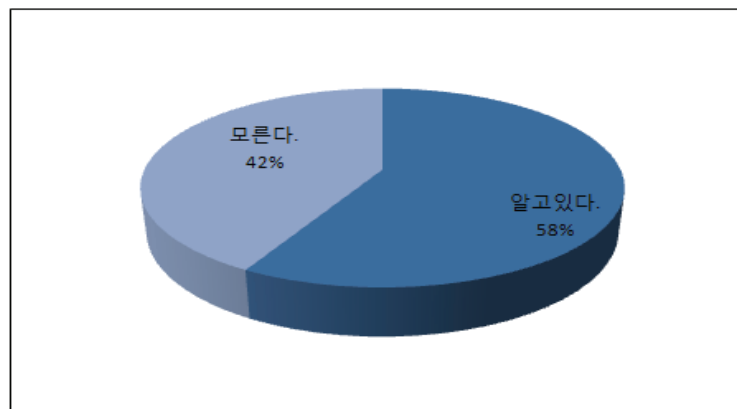
끝.

ECFA 체결에 따른 중·대만 바이어
거래선 전환의향 설문조사 결과

□ 중국 바이어 42%, ECFA 체결... '모른다'

- KOTRA 중국통상전략연구센터와 중국지역 8개 KBC가 최근 베이징, 상하이, 산둥성, 랴오닝성 등지의 한국기업과 거래하는 중국바이어와 대만바이어를 대상으로 ECFA체결에 따른 거래선회환의향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 결과, 설문응답 중국 바이어 100개사 중 58개사가 '중-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이하 ECFA)'체결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42개사는 모른다고 답해 ECFA 체결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한편, 한국과 거래하는 대만기업 20개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진 결과, 16개사가 'ECFA 체결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중국기업에 비해 대만기업의 ECFA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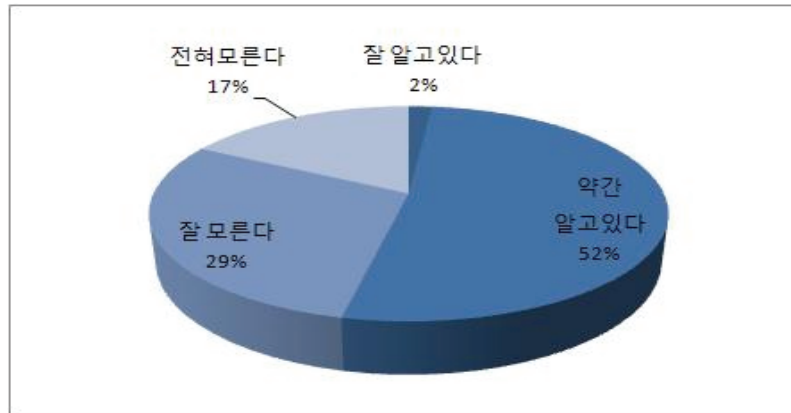
[중국바이어 답변]중-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 체결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는가



□ '협정 양허안 내용 안다', 중국 바이어 58%-대만 바이어 82%

- 중국 바이어중 'ECFA체결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기업 중 2%만이 '협정 양허안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고 답했고, '약간 알고 있다'라고 답한 비중은 전체의 52%로 나타남
 - 협정양허안을 '모른다'라고 답한 바이어도 전체의 46%에 달해 중국바이어의 양허안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높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됨
 - 대만바이어의 경우, '협정양허안을 잘 알고 있다' 또는 '약간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82%로 나타나 대만기업이 중국기업에 비해 ECFA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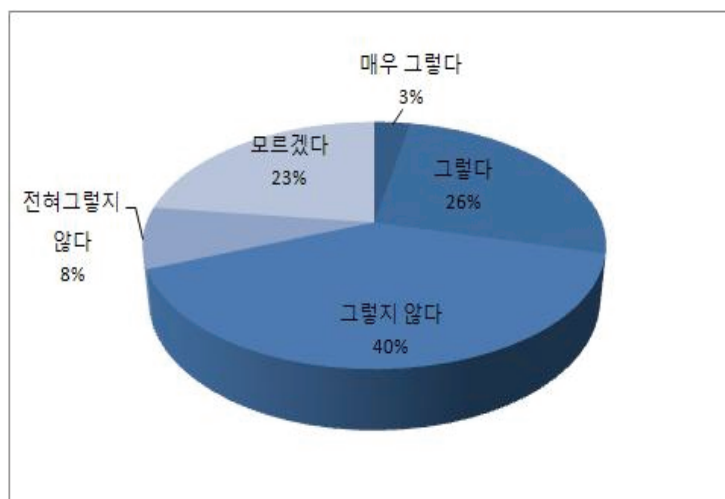
[중국바이어 답변]협정 양허안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 중국 바이어 29%, '대만기업으로 거래선 전환의향 있다'

- 'ECFA가 발효될 경우 기존에 거래하던 한국거래선을 대만기업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중국바이어의 48%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반면, 29%는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한편, '모르겠다'라고 응답을 유보한 중국 바이어가 전체의 23%를 차지해 ECFA체결 이후에도 A/S, 품질력 제고를 통해 기존 중국거래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됨
- 대만바이어는 ECFA 발효후 거래선을 중국기업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의 75%가 '의향이 없다'라고 답해 ECFA 발효에 따른 대만내 우리제품의 타격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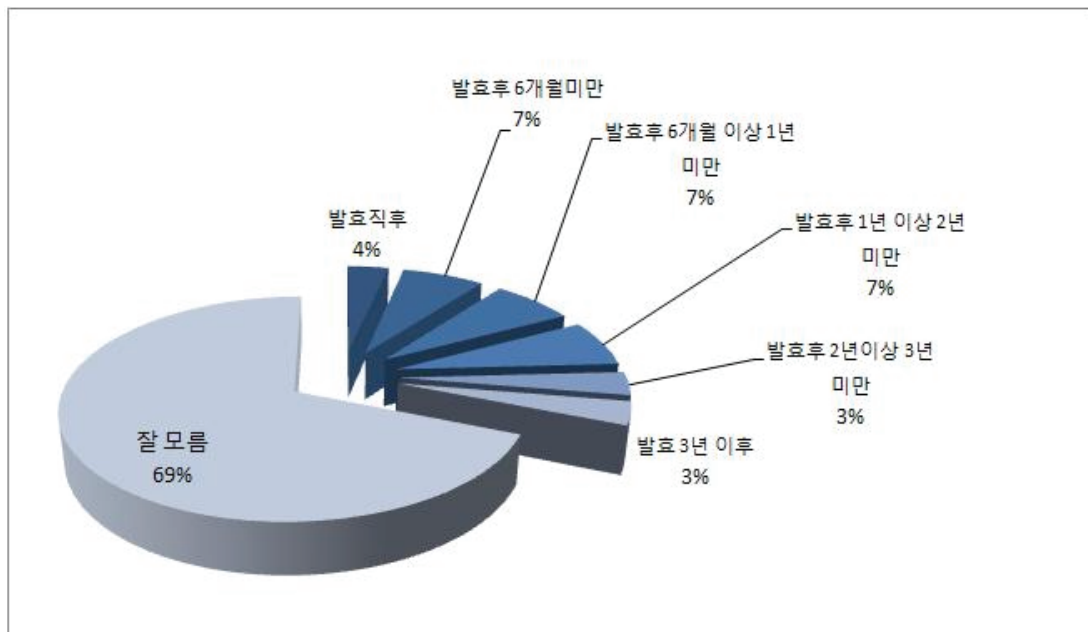
[중국바이어 답변] '중-대만 경제협력 기본협정'이 발효될 경우 기존에 거래하던 한국거래선을 대만기업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가



□ 거래선 전환 의향 바이어 중 69%, 거래선 언제 바꿀지는 '미지수'

- 거래선 전환의향이 있는 바이어의 약 1/4이 협정발효 2년내 거래선을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 대만기업으로 거래선을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중 '협정 발효후 6개월미만', '발효후 6개월 이상 1년미만', '발효 후 1년 이상 2년미만'으로 응답한 바이어가 각각 7%에 달함
 - '협정 발효후 2년 이상 3년 미만' 또는 '발효후 3년 이후'라고 답한 바이어는 각각 3%로 비중이 낮았음
- 전환의향이 있는 바이어중 전환시점을 '모르겠다'라고 응답해 답변을 유보한 기업이 전체의 69%로 가장 많다는 점에서 ECFA 발효후 즉각적인 거래선 전환사태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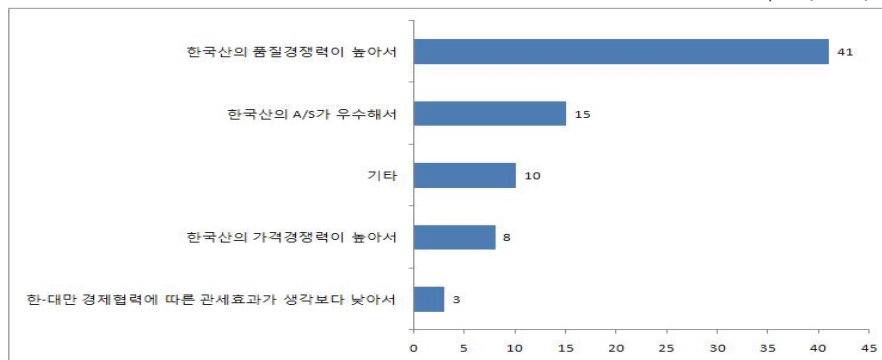
[중국바이어 답변]거래선을 대만기업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면 전환시점을 언제쯤으로 생각하는가



□ '한국산, 품질 우수해서 거래선 안바꾼다' 답변, 중-대만 바이어 모두 가장 많아

- 'ECFA가 발효된 후에도 한국거래선을 대만기업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중국 바이어들은 그 이유로 '한국산의 품질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답변함(41개사 답변, 복수응답 허용)
 - 뒤를 이어 ▷한국산의 A/S가 우수해서(15개사) ▷한국산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서(8개사) ▷ECF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효과가 생각보다 낮아서(3개사) 순으로 집계됨(복수응답 허용)
 - 대만 바이어들도 한국산의 품질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거래선을 변경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11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ECFA의 관세효과가 생각보다 낮아서'라고 응답이 8개사로 나타남(복수응답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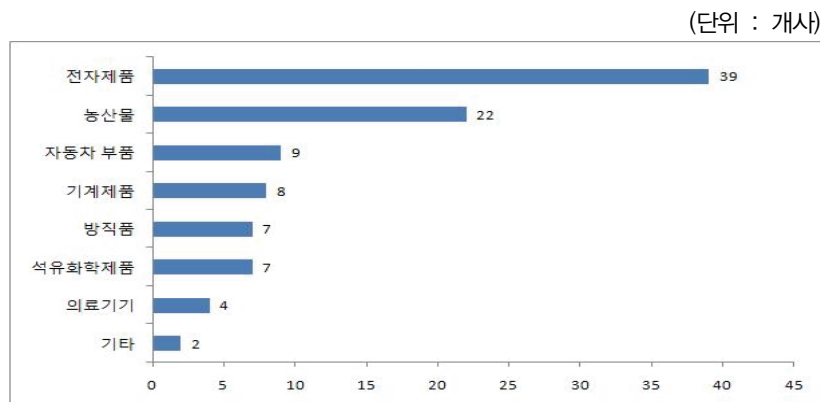
[중국바이어 답변] ECFA 체결이후에도 거래선을 한국기업에서 대만기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개사)



□ 중-대만 바이어 모두 ECFA로 가장 타격입는 한국산으로 '전자제품' 꼽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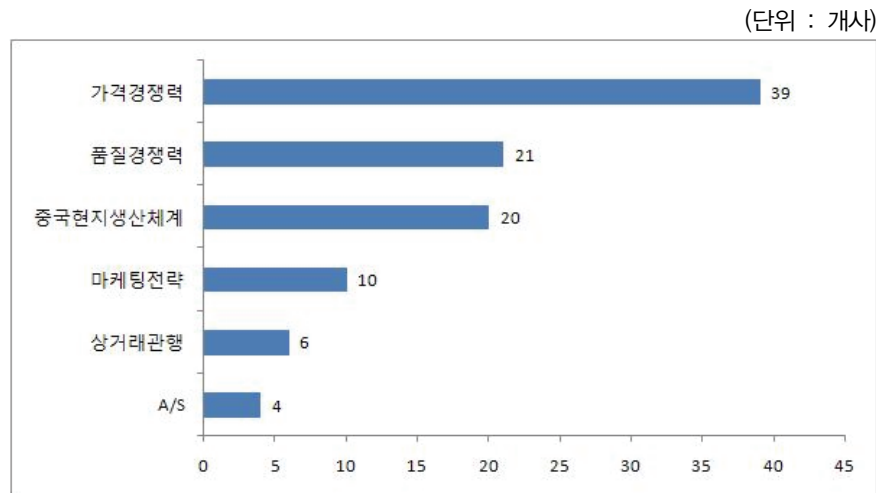
- ECFA 조기수확대상 대만산 품목의 중국 수출이 늘어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한국산으로 전자제품을 꼽은 중국바이어가 39개사로 가장 많았음(복수응답 허용)
- 다음으로는 ▷농산물(22개사) ▷자동차부품(9개사) ▷기계(8개사) ▷석유화학(7개사) ▷방직품(7개사) 순으로 나타남(복수응답 허용)

[중국바이어 답변] ECFA 조기수확대상 대만산 품목의 중국 수출이 늘어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한국산 제품



- 한편, ECFA 발효로 중국시장내 대만산과 한국산 경쟁이 심화될 경우 한국산이 시장점유율 유지 확대를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중국바이어 39개사가 가격 경쟁력을 꼽음(복수응답 허용)
- 뒤를 이어 ▷품질경쟁력(21개사) ▷중국현지생산체계(20개사) ▷마케팅 전략(10개사) ▷상거래관행(6개사) 순으로 나타남(복수응답 허용)

[중국바이어 답변] ECFA 발효로 중국시장내 대만산과 한국산 경쟁이 심화될 경우 한국산이 시장점유율 유지 확대를 위해 개선해야 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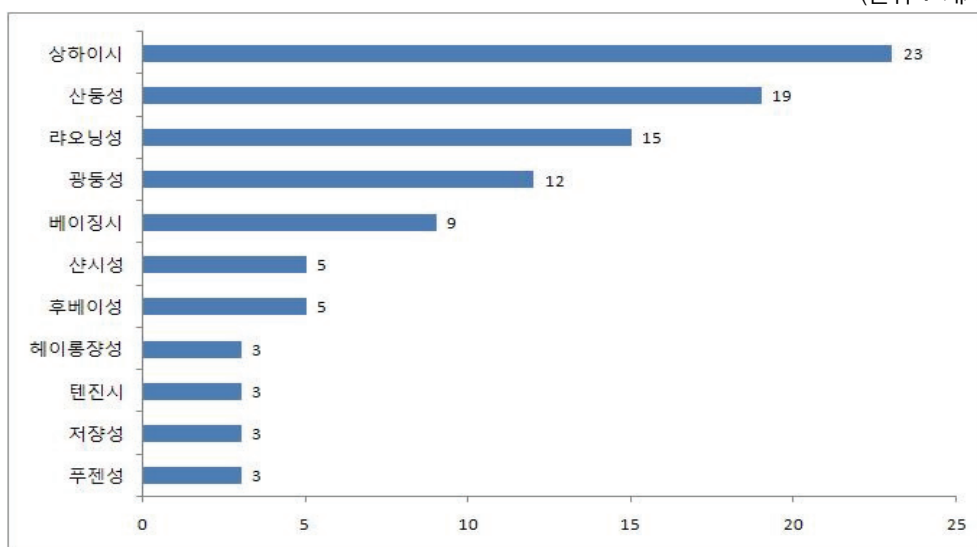


〈참고자료〉 설문응답 중국 바이어 업종 분포

- 식품가공업체 (1개사)
- 섬유 및 의류업체 (9개사)
- 종이, 펄프, 목제품, 가구업체 (1개사)
- 의료, 화장품 업체 (4개사)
- 고무, 플라스틱 제품 업체 (2개사)
- 생활용품 및 잡화 업체 (3개사)
- 일반기계업체 (3개사)
- 전자전자업체 (11개사)
- 수송기계업체 (8개사)
- 정밀기계업체 (5개사)
- 철강산업체 (2개사)
- 화학 및 석유제품업체 (8개사)
- 기타 제조업체 (4개사)
- 금융보험업체 (1개사)
- 도소매업체 (29개사)
- 물류업체 (2개사)
- 정보처리 및 소프트웨어업체 (3개사)
- 통신업체 (1개사)
- 기타 서비스업체 (3개사)

설문응답 중국 바이어 소재지 분포

(단위 : 개사)



〈끝〉

2010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2010년 세계시장의 기회와 위협	2010.1
10-002	CIS 레저시장, 이것이 대세!	2010.1
10-003	일본시장 투자진출 유망분야 및 진출전략	2010.2
10-004	2010년 세계시장의 뉴노멀 트렌드	2010.3
10-005	일본 실버산업 현황과 비즈니스 기회	2010.3
10-006	독미 강소기업에게 배운다	2010.4
10-007	요르단, 중동의 의료허브 꿈꾸다	2010.4
10-008	요르단, 중동의 의약품 수출 교두보 된다	2010.4
10-009	불황을 이긴 세계시장의 우수 중기제품들	2010.4
10-010	아시아 주요국 정보통신현황	2010.5
10-011	부상하는 아시아 유망 시장&산업	2010.5
10-012	미국 건강보험 개혁과 국내 업계 진출확대 방안	2010.6
10-013	글로벌 주요국 3D 산업 현황과 진출방안	2010.6
10-014	신재생에너지로 변화하는 서남아	2010.6
10-015	일본 신재생 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전망	2010.7
10-016	중국의 해외 M&A 사례와 시사점	2010.7
10-017	중앙아시아 건설중장비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	2010.7

□ Global Issue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최근 대한수입규제전망과 2010 전망	2010.2
10-002	최근 환경규제 동향 및 2010년 전망	2010.3
10-003	G-20 출구전략 논의 동향 및 전망	2010.3
10-004	러시아-벨로루시-카자흐스탄 관세동맹 체결과 그 영향	2010.4
10-005	러시아 Skinhead 테러주의	2010.4
10-006	한.중.일 3국의 대아시아 경제협력 현황 및 성공사례	2010.5
10-007	한국-러시아 앞으로 20년을 대비하라	2010.5

□ KOTRA Executive Brief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중동의 미개척 시장 시리아	2010.1
10-002	오바마 취임 1년, 평가와 전망	2010.1
10-003	일본 글로벌 기업의 전략 변화와 시사점	2010.2
10-004	도요타 리콜 사태의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파급효과 분석	2010.3
10-005	G20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상품 점유율 변화 동향 및 전망	2010.3
10-006	2010년 1분기 KOTRA-SERI 수출종합지수	2010.3
10-007	2010 美 USTR 무역장벽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10.4
10-008	2010년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0.4
10-009	떠오르는 녹색강국 중국시장 집중조명	2010.4
10-010	일본 차세대자동차전략 2010	2010.4
10-011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심해유전개발 프로젝트 동향	2010.5
10-012	유럽발 경제위기와 진출기업 동향	2010.5
10-013	내전종식 후 1년, 스리랑카의 새로운 기회를 점검하다	2010.5
10-014	2010 콜롬비아 대선동향	2010.5
10-015	칠레 OECD 가입과 국내업체 시사점	2010.5
10-016	태국 시위사태 현황과 전망, 경제 파급 영향	2010.5
10-017	녹색시대를 앞서가는 세계시장의 강소기업들	2010.6
10-018	일본 신성장전략 보고서	2010.7
10-019	2010년 3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0.7
10-020	최근 세계시장 현황과 우리 수출시장의 특이동향	2010.7

□ KOCHI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KOTRA가 바라본 중국 성시별 비즈니스 기회와 진출전략	2010.2
10-002	세수로 보는 2010 중국경제	2010.4
10-003	KOTRA가 선정한 올해의 차이나 키워드	2010.4
10-004	상하이 엑스포 참가효과와 경제적 가치	2010.4
10-005	상하이엑스포 이후 중국, 이렇게 바뀐다	2010.4
10-006	아시아, 대양주 녹색시장 현황 및 협력방안	2010.5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7	중국 내수 신흥유망시장 공략 설명회	2010.7
10-008	올해 중국 히트상품은 이것	2010.7
10-009	주목해야 할 중국의 2,3선 도시들	2010.7

□ FDI Theme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PIIGS 국가 경제위기 동향 및 외국인직접투자 영향 분석	2010.2
10-002	글로벌 기업의 CVC 운영현황 및 투자동향	2010.3
10-003	글로벌기업의 일본내 사업 철수, 축소 동향 및 투자유치 시사점	2010.3
10-004	중국 위안화절상이 국내 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0.3
10-005	'10년 1분기 미국 · 일본 · 유럽 대한투자현황 및 향후전망	2010.6
10-006	해외 주요국의 투자유치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2010.6
10-007	중국의 해외투자 동향 및 중국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2010.7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2010년 지역별 진출여건	2010.1
10-002	2010年 1000大 수출유망상품	2010.1
10-003	캄보디아 투자유의사항 가이드북	2010.1
10-004	KOTRA 중장기 경영전략 G-LEAD 2020	2010.1
10-005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 (미국편)	2010.2
10-006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 (중국편)	2010.2
10-007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 (일본편)	2010.2
10-008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 (베트남편)	2010.2
10-009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및 규정집	2010.3
10-010	Living in Korea Q&A	2010.2
10-011	해외 전력시장 진출 가이드	2010.2
10-012	중동 · 북아프리카 비즈니스 & 문화 가이드	2010.2
10-013	[ITS]신성장 동력 글로벌 시장동향과 진출전략	2010.3
10-014	[바이오의약품]신성장 동력 글로벌 시장동향과 진출전략	2010.3
10-015	[태양광]신성장 동력 글로벌 시장동향과 진출전략	2010.3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16	2009 중국시장 진출확대사업 보고서	2010.2
10-017	2009 일본시장 진출확대사업 보고서	2010.2
10-018	중국 유사상품 및 서비스 구분표	2010.3
10-019	한-아부다비 비즈니스 포럼 종합 결과 보고서	2010.3
10-020	IPP(민자발전) 프로젝트 수주 가이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집트, 케냐)	2010.5
10-021	주요국 Smart Grid 정책/시장 조사	2010.4
10-022	'09년 해외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10.4
10-023	그린리포트 (Vol 7, 2010 Spring)	2010.4
10-024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Network 2010	2010.4
10-025	주요국 정보통신 현황 - 유럽편	2010.4
10-026	주요국 정보통신 현황 - 미주편	2010.4
10-027	주요국 정보통신 현황 - 아시아/대양주편	2010.4
10-028	주요국 정보통신 현황 - 중동/아프리카/CIS편	2010.4
10-029	북미 온라인 대형 유통망 진출 전략	2010.4
10-030	2009 외국인투자유치부즈만 연차보고서	2010.5
10-031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09	2010.5
10-032	러시아 건설시장 진출가이드	2010.5
10-033	중동 소매유통시장 공략포인트	2010.6
10-034	주요산업별 국가 투자유치 경쟁력 분석	2010.6
10-035	주요산업별 FDI 프로젝트 동향	2010.6
10-036	우리기업의 업종별 해외투자지도	2010.6
10-037	SW수출강국도약-이스라엘성공사례분석	2010.6
10-038	2009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0.6
10-039	중동CIS 의료기기 시장동향	2010.6
10-040	중동CIS 의약품 시장동향	2010.6
10-041	Global Smart SOC Initiative 2010 결과 보고서	2010.7
10-042	그린리포트(Vol 8, 2010 Summer)	2010.6
10-043	인도 주별 시장특성과 비즈니스 기회	2010.6
10-044	글로벌 IT 100대 기업 협력현황 분석(상)	2010.7
10-045	글로벌 IT 100대 기업 협력현황 분석(하)	2010.7
10-046	몽골 투자 가이드	2010.7
10-047	국가 및 산업 브랜드 맵	2010.6
10-048	201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개최결과보고서	2010.7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0-001	2010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10.1
10-002	2010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 포럼	2010.1
10-003	“물류센터를 활용한” 북미대형온라인유통망진출전략설명회	2010.3
10-004	세계 전력 시장 진출 설명회	2010.3
10-005	앞으로 5년, 미리보는 중국시장과 사업기회	2010.3
10-006	[ITS]신성장 동력 해외 진출전략 설명회	2010.3
10-007	[바이오의약품]신성장 동력 해외 진출전략 설명회	2010.3
10-008	인도 비즈니스 환경변화와 성공전략	2010.3
10-009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전략 포럼	2010.3
10-010	GATEI 글로벌 바이오기술 투자세미나	2010.3
10-011	KOTRA 중남미클럽 창립 포럼	2010.3
10-012	2010 글로벌 채용박람회	2010.3
10-013	KOTRA-Alibaba 온라인 한국 상품관 설명회	2010.4
10-014	제 2차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전략 포럼	2010.5
10-015	2010 춘계 글로벌 파워텍 연계 세미나	2010.5
10-016	GE 투자설명회	2010.5
10-017	Global Project Plaza 2010	2010.5
10-018	Global Project Plaza 2010 – Asia Session	2010.5
10-019	Solvay Venture Initiative	2010.6
10-020	인도 비즈니스 포럼 창립 세미나	2010.6
10-021	중국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2010.6
10-022	중동CIS 의료시장 진출 설명회	2010.6
10-023	중남미 클럽 2차 포럼	2010.6